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정보리터러시 현황 분석

- 중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

Current Status of Information Literacy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조 용 완(Yong-Wan Cho)*

이 수 상(Soo-Sang Lee)**

목 차

- | | |
|----------------------------|-------------------------------------|
| 1. 서 론 | 3. 연구의 설계 |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4. 연구의 결과 |
| 1.2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 4.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
| 2. 이론적 배경 | 4.2 유학생들의 정보리터러시 실태 |
| 2.1 정보리터러시 | 4.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학생의
정보리터러시 수준 분석 |
| 2.2 유학생의 정보리터러시 관련
선행연구 | 5. 결론 및 제언 |

초 록

본 연구는 최근 국내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원활한 학업수행을 위해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정보리터러시 수준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부산과 인근지역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2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중국인 유학생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정보리터러시 수준을 중간점수보다 조금 높은 정도라고 응답하였고, 구체적으로 <정보윤리/정보문화>, <정보통신기술>, <정보요구 인식/정보원 파악> 영역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으며, <정보분석/종합/관리>, <정보생산/소통/공유>, <정보조사/정보검색>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ABSTRACT

The authors of this study tried to explore the current status of the levels of information literacy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where many foreign students, mainly from several Asian countries, have been moving continuously into various universities. To do this, a survey was conducted of 202 Chinese students enrolled in universities in Busan and its neighboring area. They responded that their level of information literacy was slightly above the middle range and that the fields of 'information ethics'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were relatively high whereas 'information production, communication and sharing' and 'information investigation and search' were relatively low.

키워드: 유학생, 정보리터러시, 정보활용능력, 다문화 사회, 대학도서관

International Students, Foreign Student, Student Studying Abroad, Information Literacy, Information Competency, Multicultural Society, Diversity, University Library, Academic Library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joyproject@empal.com)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sslee@pusan.ac.kr)

논문접수일자: 2010년 1월 30일 최초심사일자: 2010년 2월 3일 게재확정일자: 2010년 2월 11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1): 75-99, 2010. [DOI:10.4275/KSLIS.2010.44.1.075]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국내 대학에는 상당한 규모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2009)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1995년에 1,983명에서 2005년에 22,526명으로, 2008년 4월 현재에는 무려 63,952명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최근 13년간 32배 증가라는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을 출신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인 유학생이 70.0%, 한국계 중국인 학생이 2.3%여서 중국출신 유학생이 압도적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일본 출신이 5.2%, 몽골 출신이 3.2%, 베트남 출신이 2.8%, 미국 출신이 2.3% 등으로 나타나 국내 유학생의 대부분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낯선 환경에서 생소한 언어로 그 사회의 기존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게 된다. 그들은 기존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업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요구를 인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입수하여 이용한 뒤 과제나 시험을 준비하고 수업에서 발표를 하게 된다.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들도 학업성취를 위해서는 기존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업수행에 관한 필요한 정보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를 충분히 보유해야 한다. 최근 국내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정보리터러시 실태를 조사하고 정보리터러시를 고양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국내연구는 아직 그리 활발하지 않은 실정으로, 맹아적 단계에 놓여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권역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특히 그 중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전반적인 정보리터러시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그들의 정보리터러시 증진 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1.2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필요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외국인 유학생의 정보리터러시 관련 연구들과 고등교육 관련 정보리터러시 기준과 지침들을 대상으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정보리터러시 관련 도구를 개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부산과 인근도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로 정하였다. 아래의 <표 1>과 같이 부산지역에는 2009년 4월 현재, 총 5,313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등록해 있다. 그 중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82.5%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국가 출신에 비해 월등히 많은 뿐 아니라 국내 전체의 중국인 유학생 비율보다 더 높은 상태였다. 이처럼 중국 출신 이외의 유학생들은 각 대학별로 매우 적어 소재과학과 접근, 대표성 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전체와 부산권역 유학생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으로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집방법은 각 대학에 산재되어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과의 접촉이 쉽지 않아 부득이하게 유의표집을 실시하였다. 2009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된 설문조사는 웹 기반의

〈표 1〉 부산시내 국적별/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부산시 국제교류재단, 2009. 4월 현재)

국적 \ 학교	계	부산	신라	외대	동의	동아	부경	동서	영산	동명	인제	경성	해양	고신
계	5,313(100%)	766	678	608	496	453	427	380	349	344	250	222	172	168
중국	4,381(82.5%)	652	616	496	469	363	265	317	322	336	183	140	140	82
베트남	141(2.7%)	25	2	39	5	3	18		23	4	11	1	7	3
일본	123(2.3%)	15	8	16	7	15	36	12			10	1	2	1
몽골	98(1.8%)	2	9	1	3	39	22	2		2	15	1		2
인도네시아	95(1.8%)	9		1			16	2				61		6
러시아	57(1.1%)	5	1	20	1	7	4	15	1		2			1
대만	55(1.0%)	20		3	5	12	10				1	3	1	
인도	30(0.6%)	13	1			3	6	6					1	
미국	28(0.5%)	6		2		1	9		1		4	1	2	2
필리핀	28(0.5%)		5	2			1				3			17
태국	24(0.5%)	1	4	12			1				2		1	3
터키	24(0.5%)	2		2		2	7					7	4	
방글라데시	23(0.4%)	7	3		2	3	7							1
말레이시아	22(0.4%)		3				2	12			4			1
캄보디아	22(0.4%)		7								1			14
기타	162(3.0%)	9	19	14	4	5	23	14	2	2	14	7	14	35

설문조사와 기숙사와 강의실 방문을 통한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부산권역 7개 대학의 202명의 유학생이 참여하였고, 웹 설문조사를 통해 120부, 현장조사를 통해 82부가 회수되었다.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SPSS를 사용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양한 독립변인을 기준으로 하여 집단간 정보리터러시 수준의 차이를 검정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정보리터러시

2.1.1 정보리터러시의 정의

정보리터러시는 정보문해, 정보활용능력, 정

보소양, 정보지성 등과 같이 다양한 용어들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 정보리터러시의 기원을 도서관이 전통적으로 수행해 온 도서관 이용교육에서 찾을 수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1974년 『미국정보산업협회』(Information Industry Association)의 회장 주르코브스키(Paul Zurkowski)가 『미국 국가도서관·정보학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에 제출한 보고서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정보리터러시를 가진 사람(the information literate)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주요한 정보원들과 정보관련 도구들을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표현되었다(Owusu-Ansah 2005). 그리고 1989년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 산하 『정보리터러시 위원회』(Presidential

Committee on Information Literacy)의 보고서는 “정보리터러시를 보유하기 위해, 사람은 정보가 필요한 때를 인식하고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찾아내고 평가하고 이용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하였고(ALA 1989), 이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조직된 『정보리터러시 국가포럼』(NFIL, The National Forum on Information Literacy)은 정보리터러시를 “정보가 필요한 시기를 알고, 주어진 과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식별하고, 검색하고, 평가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NFIL 2009). 『미국대학도서관협회』(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ACRL)도 ALA의 정의를 차용하여 정보리터러시를 “정보가 필요한 때를 인식하고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찾아내고 평가하고 이용하는 능력의 집합”으로 간략히 정의하였다(ACRL 2000). 『UNESCO』, 『IFLA』(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NFIL』(2006) 등이 공동 발표한 “Alexandria Proclamation on Information Literacy and Lifelong Learning”에서는 정보리터러시를 개인적, 사회적, 직업적, 교육적 목표 달성을 위해 효과적으로 정보를 찾아내고 평가하고 이용하고 생산하는 능력으로 정의하면서, 디지털 사회 속에서 정보리터러시는 개인의 기본권 중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상에서 밝힌 주요한 정의들을 정리하면, 정보리터러시는 지식정보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으로서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총체적인 기량과 능력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정보요구의 인식과 정보의 식별과 검색, 이용,

평가, 생산, 그리고 그 과정에 관련된 윤리적인 측면과 같은 영역들이 포함된다.

2.1.2 고등교육 관련 주요 정보리터러시 기준들

정보리터러시는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필수적인 생존능력과 같은 것이어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정보리터러시 수준을 보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이 정보의 입수와 이용, 그리고 이를 통한 새로운 정보의 생산과 배포 관련 활동에 연결되어 있어서 정보리터러시의 보유여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집단은 바로 대학생과 대학원생 등을 포함하는 고등교육 분야라 할 수 있다. 그들은 다양한 과목을 수강하면서 각 과목마다 수업 준비, 과제의 수행, 보고서 작성, 논문 작성, 각종 시험 등의 활동에 참가하면서 광범위하게 정보 관련 활동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고등교육 분야에 있어 정보리터러시의 보유 여부와 그 수준은 당장에는 우수한 학점의 획득으로, 나중에는 성공적인 사회진출과 직업획득, 궁극적으로는 성공적인 학문의 성취 또는 삶의 영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여러 나라의 대학도서관 관련 협력체들과 주 차원 또는 개별 대학도서관 차원에서는 고등교육을 위한 정보리터러시 기준이나 체크리스트 등을 제정하여 고등교육에 속한 사람들의 정보리터러시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에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고등교육 관련 정보리터러시 기준들은 다음과 같으며, 각 기준들의 구성요소는 아래의 <표 2>와 같다(이용재 외 2009).

〈표 2〉 고등교육 관련 주요 정보리터러시 기준 구성요소 비교

ACRL 기준	SCONUL 기준	ANZIIL 기준	비고
1. 필요한 정보의 특성과 범위 파악 능력	1. 정보요구의 인식 능력 2. 정보결손의 확인 능력	1. 정보의 필요성 인식, 필요한 정보의 특성과 범위 결정 능력	정보요구/정보원 인식
2.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 능력	3. 검색전략의 구축 능력 4. 소재파악 및 검색 능력	2.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 능력	정보조사/정보검색
3. 정보의 비판적 평가와 선택된 정보를 자신의 지식체계로의 결합 능력	5. 비교평가 능력	3. 정보와 정보원에 대한 비판적 평가 능력	정보분석/정보관리
4. 정보의 효과적인 이용 능력	6. 정보의 조직, 적용, 전달 능력 7. 기존 정보의 종합 및 새로운 지식의 창조능력	4. 축적, 수집, 생산된 정보의 관리 능력 5. 기존 정보와 새로운 정보의 적용 능력	정보생산/정보공유
5. 정보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문제의 인식 능력		6. 정보의 이용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문제의 인식 능력	정보윤리/정보문화

- ACRL 기준 : 2000년에 발표된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Standards for Higher Education』은 총 5개의 기준과 22개의 수행지표(Performance Indicators), 87개의 성과측정항목(Outcomes)으로 이루어졌다(ACRL 2000).
- ANZIIL 기준 : 2001년 『호주 대학도서관 사서협회』(CAUL, Council of Australian University Librarians)가 ACRL 기준을 수정하여 『Information Literacy Standards』 1판을 제정하였고, 2004년 『호주/뉴질랜드 정보리터러시 연구소』(ANZIIL, Australian and New Zealand Institute for Information Literacy)가 제1판을 보완하여 『Australian and New Zealand Information Literacy Framework - principles, standards and practice』를 통해 정보리터러시 기준 2판을 공표하였다(ANZIIL 2004).
- SCONUL 기준 : 영국의 『대학 및 국가도서관협회』(SCONUL, Society of College,

National and University Libraries)는 기존 정보교육이 정보통신기술 이용능력에 치우쳐 있고 더 중요한 비판적 평가와 다양한 자료의 이용과 같은 요소들을 간과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자 정보리터러시 기준과 『정보리터러시 일곱 기둥 모형』(The Seven Pillars of Information Literacy)을 개발하였다(박명규 2004).

2.2 유학생의 정보리터러시 관련 선행연구

국내의 외국인 유학생 정보리터러시 관련 연구는 아직 성숙한 단계가 아니어서 연구 성과가 그리 많지 않으며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보리터러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경우는 드물었다. 기존 국내 연구들은 주로 대학도서관이 제공한 도서관 이용 및 정보활용에 관한 교육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거나 도서관이 제공하는 포털 서비스 등에 대한 만족도를 다루고 있다. 먼저, 김태자, 민지은, 이상호(2008)는 충남

지역의 한 대학도서관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이용자교육의 사례를 경험을 소개하였다. 이 도서관은 도서관 시설 안내, 도서관 서비스 안내, 자료검색 및 학술DB 활용법, 질의응답, 도서관 투어 등에 대해 영어로 이용자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유학생들의 교육 만족도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현실과 황동렬(2007)은 대학도서관이 국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정보이용교육 프로그램을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하면서, 교육 전후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유학생에게도 이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었고 만족도에서는 중간정도의 만족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수상과 위성광(2007)은 부산지역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서관의 포털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도서관 정보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인 "LibQUAL+"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는데, 전체적인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수상(2009)은 IFLA의 "Multicultural Communities: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지침을 토대로 설문을 개발하여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도서관이 제공하는 다문화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유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도서관의 디지털도서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주(2008)는 부산지역 한 대학의 석사과정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학업관련 정보추구행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유학생들은 상당한 정보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업정보의 영어지원 강화, 효과적인 한국어 강좌 운영, 유학생 지향의 도서관 이용교육 실시와 홍보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연구들과 달리, 해외의 경우, 북미와 유럽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특히 아시아권 유학생의 정보리터러시와 관련된 연구 성과를 많이 생산하고 있었다. 우선, 유학생이 도서관과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과정을 분석하거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요인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Hughes(2001)는 호주 내 유학생이 직면하는 문제점으로 감정의 기복, 언어장벽,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신체적 문제, 문화충격, 인종차별과 편견, 학습충격, 도서관 충격 등으로 정리하면서 유학생 친화적인 도서관을 위한 효과적인 정보리터러시 프로그램의 운영방안들을 제시하였다. Baron과 Strout-Dapaz(2001)는 미국의 대학도서관과 대학의 유학생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언어와 커뮤니케이션 문제, 새로운 교육시스템과 도서관 시스템에 대한 적응 문제, 일반적인 문화적응 문제 등을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주요 문제로 지적하였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정보리터러시에 기반한 도서관 이용교육을 제안하였다. Badke(2002)는 유학생들은 영어 듣기와 말하기 외에도 미국의 도서관 시스템과 관련기술, 주체적 학습과 비판적 사고가 중심인 서구의 학문풍토, 조사연구와 글쓰기 등의 정보리터러시 관련 문제를 겪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ACRL의 정보리터러시 지침에서 유학생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유학생에 적합한 대안적 접근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Song(2004)은 미국의 경영학과 유학생 143명(66%는 동아시아 출신)들을 대상으로 전자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이 도서관 서비스의 중

요도를 개인 학습공간, 공용 컴퓨터, 전자정보원, 그룹 스터디룸, 가상 참고봉사 순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들 중 57%가 모국에서 인터넷으로 전자정보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고, 82%가 모국에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접속하였음을 지적하며, 낮은 전자정보 이용경험과 가상 참고봉사 인식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서관 교육 방식, 내용과 시기의 개선을 주장하였다. Jackson(2005)은 미국에 유학 온 신입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과거 연구들과 달리 최근의 유학생들 대부분은 모국에서 이미 도서관을 이용해왔고, 컴퓨터와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는 등 적극적인 정보이용 활동을 보여주고 있음을 밝혔다. 향후 도서관은 컴퓨터 리터러시보다는 비판적 사고와 검색전략 개발 등과 같은 높은 수준의 정보리터러시 기량을 배양하는 교육을 개발하는데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Amsberry(2008)는 유학생 대상 도서관 이용교육 관련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장애는 언어문제라고 지적하고, 도서관 분야와 외국어 습득 관련 분야의 연구들을 발음, 문법, 어휘 등의 “교사의 말하기 영역”과 “상호작용 영역”으로 분석하면서 유학생 대상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세부 기술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학도서관 등이 유학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과 정보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사례를 소개한 연구들도 다수 존재하였다. Liestman과 Wu(1990)는 미국 내 한 대학이 유학생들을 위해 모국어와 영어로 된 도서관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한 결과, 비록 참가 인원은 적었지만 모국어 세션에 참가한 유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으며, 사전/사후 테스트 결과, 모국어 세션 참가자들이 더욱 높은 상승효

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Varga-Atkins와 Linda(2004)는 영국 내 2개 대학의 경영학과 학부에 재학 중인 영국학생 69명과 유학생 70명(EU 출신이 51명)의 정보 기량을 비교 측정하였다. 그 결과, 영국학생이 유학생에 비해 정보리터러시 관련 교육기회는 더 많았지만, 실제 유학생이 영국학생과 정보 기량에서 차이는 별로 없었고, 실제 두 그룹 다 정보기량이 그리 높지 않았음을 밝혔다. Telford(2006)는 유학생의 정보리터러시 증진을 위해 호주 내 한 대학이 운영한 정보리터러시 프로그램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참여 유학생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Hurley 등(2006)은 아일랜드의 한 대학의 중국과 파키스탄 유학생을 위한 정보리터러시 교과목 운영사례를 발표하는데, 유학생들은 컴퓨터 리터러시 수준은 매우 높지만 전반적으로 정보리터러시에 대한 이해는 높지 않았으며, 유학생을 위한 자체적인 정보리터러시 기준에 맞춰 교과목을 운영한 결과, 유학생들의 도서관 관련 지식이 확장되었으며, 유학생 스스로도 매우 유용하다고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Mu(2007)는 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서관의 정보자원과 정보서비스 관련 마케팅을 펼치는데 도움이 될 전략들을 소개하면서 사서들이 긍정적 이미지를 개발하고 적극적 자세로 유학생들과 친근한 관계를 형성할 것 등을 주문하였다. McClure와 Krishnamurthy(2007)는 미국의 한 대학도서관이 영어와 도서관 용어 등에 생소한 유학생들을 위해 도서관 홈페이지 내에 주요 유학생 모국어로 된 웹페이지를 제작하여 유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웹페이지의 지속적인 이용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상에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특히 아시아권 유학생들은 모국의 교수-학습 문화와 도서관 문화, 정보통신기술 수준 등의 저발전에서 비롯된 상대적으로 낮은 정보리터러시 상태에서, 유학 온 나라에서 겪는 언어문제, 자기주도적 학습문화, 심리적 위축 등 다양한 문제들이 겹쳐지면서 학업수행에 필수적인 다양한 정보의 접근, 입수, 이용, 생산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Song, Hurley, Jackson 등의 연구에서는 아시아계 등의 유학생들이 여전히 서구의 학습문화와 정보문화 등에 대한 적응의 문제는 가지고 있지만, 과거와 달리 컴퓨터와 인터넷의 접근과 활용능력에 있어서는 기존 학생들과 필적할 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의 관련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의 정보리터러시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독립변인들이 그들의 정보리터러시 수준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3. 연구의 설계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보리터러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앞에서 언급한 주요 고등교육 관련 정보리터러시 기준들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주요 요소들과

학업수행과정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정보통신기술 요소를 묶어 유학생의 정보리터러시 수준을 파악하는 조사도구로 활용하였다. 여기에는 아래의 <표 3>과 같이 첫째, <정보요구 인식/정보원 파악>, 둘째, <정보조사/정보검색>, 셋째, <정보분석/관리/종합>, 넷째, <정보생산/소통/공유>, 다섯째, <정보윤리/문화>, 여섯째, <정보통신기술> 등이 포함되며, 각 항목들은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6개의 세부요소들을 가지고 있다.¹⁾²⁾

그리고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보리터러시 수준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앞의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요소들을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는데, 여기에는 언어(한국어) 교육 이수여부와 기간, 정보활용교육(도서관 이용교육과 컴퓨터/인터넷 이용교육) 이수여부와 기간, 언어(한국어) 능력수준, 정보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적극성, 도서관 이용빈도,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빈도, 정보통신기술 보유 수준, 인쇄매체 접근 수준, 학습스타일의 자기주도적 성향 여부, 유학 중 심리적 상황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연령대, 성별, 전공분야, 유학기간, 학년 등 유학생의 인구학적 사항들도 정보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한 독립변수로써 활용되었다.

유학생의 정보리터러시에 관련된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의 알파계수값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정보리터러시 전체 문

- 1) 정보리터러시 실태에 관한 질문은 5점 척도로 구성되었는데, 해당항목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면 1점을 주고 매우 긍정적이면 5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 2) 본 연구에서 <정보통신기술>을 별도의 영역으로 분리한 것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의 검색, 이용, 생산 등에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커지고 있고, 유관 분야에서는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리터러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을 정도로 정보통신기술이 오늘날 가지는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표 3〉 국내 유학생의 정보리터러시 관련 주요 구성요소

주요 구성요소	세부요소	문항수
정보요구 인식/정보원 파악	과제의 핵심적 내용 파악 과제의 내용을 키워드로 표현 과제에 필요한 정보유형 파악 정보원 유형별 특성 인식	4
정보조사/정보검색	설문조사, 면담 등 조사방법의 특성 이해 검색시스템(데이터베이스)별 특성/용도 인식 대중적인 정보원과 학술적인 정보원의 차이 인식 서명, 저자명, 키워드 등 검색항목 이해 블리언 연산 검색기법 사용 인접연산, 절단검색 등 고급 검색 사용 결과 내 검색 등 검색항목 제한 사용 동어어, 관련어, 상하위 개념어 등을 통한 검색식 조정 원문입수를 위해 대출, 원문복사 등의 방법 사용	9
정보분석/종합/관리	입수한 정보를 평가기준에 따라 유용성 판단 수집된 정보에서 서지정보 추출 수집된 정보의 탐독과 적절한 요약 수집된 정보의 체계적 분류와 관리 서지관리도구를 이용한 정보관리	5
정보생산/소통/공유	체계적, 논리적 보고서 작성 타 연구결과와 적절한 인용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각종 도구의 사용 사진, 음악, 영상 등의 UCC 제작 정보교환을 위한 Listserv/인터넷카페/블로그 등 이용	5
정보윤리/정보문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비 철저 타인의 연구나 인터넷 게시물 이용시 표절문제 인식 저작물의 공정이용과 정당한 비용지불 인터넷 예절의 준수 인터넷 중독과 게임중독의 위험성 인식	5
정보통신기술	인터넷 검색의 원활한 이용 중국어 언어팩 설치 인터넷 메신저의 원활한 이용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의 원활한 이용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의 원활한 이용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의 원활한 이용 영상 편집 프로그램의 원활한 이용 그래픽 프로그램의 원활한 이용 홈페이지의 제작 가능 프린터/스캐너/이동식 저장장치 등 주변기기 사용	10

항의 신뢰도 검증 결과는 0.947로 나타났으며, 세부 항목별 신뢰도 검증 결과는 아래의 〈표 4〉와 같이 고르게 높은 점수를 보여, 각 영역을 표

현히는 하위 측정항목이 하나의 동일한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 국내 유학생의 정보리터러시 측정항목의 신뢰도

측정항목	정보요구 인식/ 정보원 파악	정보조사/ 정보검색	정보분석/ 관리/종합	정보생산/ 소통/공유	정보윤리/ 문화	정보통신기술
Cronbach's Alpha	0.882	0.934	0.822	0.811	0.826	0.874

4. 연구의 결과

4.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아래의 〈표 5〉는 조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대〉는 이들이 대학 유학생이므로 대부분이 20대였으며, 남녀비율은 약 6:4 정도였다. 〈재학형태〉는 정규입학이 대부분이었으며, 69%가 학부생이었고 31%는 대학원에 재학중이었다. 〈전공분야〉는 공학, 인문, 사회, 자연, 예술/체육 순으로 많았으며, 〈한국

유학기간〉은 1년 미만과 2년 미만이 전체의 60%로 가장 많았다.

한편, 조사대상인 중국인 유학생의 절대 다수는 한국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아래의 〈표 6〉과 같이, 〈한국어 교육〉을 ‘중국에서 이수한 사람’이 약 76%, ‘한국에서 이수한 사람’이 약 91%로 나타나 거의 모두가 한국어 교육을 이수한 상황이었는데, 이를 추가 분석한 결과, ‘양국에서 모두 이수’ 139명(69%), ‘중국에서만 이수’ 14명(6.9%), ‘한국에서만 이수’ 45명(22.3%), ‘양국에서 모두 미이수’ 4명

〈표 5〉 조사대상의 일반적 현황

내용	구분	빈도	유효백분율	내용	구분	빈도	유효백분율
연령대	10대	14	7.1	전공 분야	인문	58	29.7
	20대	177	89.4		사회	58	29.7
	30대	6	3.0		자연	15	7.7
	40대	1	0.5		공학	61	31.3
	계	198	100		예술/체육	3	1.5
성별	남	80	58.4		계	195	100
	여	57	41.6	한국 유학 기간	1년 미만	76	38.4
	계	137	100		2년 미만	43	21.7
재학 형태	정규입학	148	75.3		3년 미만	24	12.1
	교환학생	27	13.6		4년 미만	27	13.6
	언어연수	14	7.1		5년 미만	16	8.1
	기타	8	4.0		5년 이상	12	6.1
	계	198	100	계	198	100	
학년	학부 1학년	39	20.7	학년	석사과정	44	23.4
	학부 2학년	23	12.2		박사과정	6	3.2
	학부 3학년	39	20.7		박사수료이상	8	4.3
	학부 4학년	29	15.4		계	188	100

〈표 6〉 조사대상의 한국어 교육 및 정보활용교육 이수 실태

내 용	구 분	중국에서 이수		한국에서 이수	
		빈도	유효 백분율	빈도	유효 백분율
한국어 교육 이수	있다	153	75.7	184	91.1
	없다	49	24.3	18	8.9
	계	202	100	202	100
한국어 교육 기간	1주일 미만	9	6.0	-	-
	1주일-1개월 미만	12	7.9	4	2.2
	1개월-2개월 미만	15	9.9	3	1.7
	2개월-3개월 미만	26	17.2	28	15.5
	3개월-6개월 미만	34	22.5	53	29.3
	6개월 이상	55	36.4	93	51.4
	계	151	100	181	100
도서관 이용 교육 이수	있다	102	50.5	68	33.7
	없다	100	49.5	134	66.3
	계	202	100	202	100
도서관 이용 교육 기간	1주일 미만	33	33.0	15	23.1
	1주일-1개월 미만	15	15.0	11	16.9
	1개월-2개월 미만	8	8.0	4	6.2
	2개월-3개월 미만	5	5.0	5	7.7
	3개월-6개월 미만	9	9.0	13	20.0
	6개월 이상	30	30.0	17	26.2
	계	100	100	65	100
컴퓨터와 인터넷 교육 이수	있다	158	78.2	97	48.0
	없다	44	21.8	105	52.0
	계	202	100	202	100
컴퓨터와 인터넷 교육 기간	1주일 미만	7	4.5	7	7.4
	1주일-1개월 미만	8	5.2	5	5.3
	1개월-2개월 미만	6	3.9	3	3.2
	2개월-3개월 미만	17	11.0	11	11.6
	3개월-6개월 미만	15	9.7	32	33.7
	6개월 이상	102	65.8	37	38.9
	계	155	100	95	100

(2%)이었다. 〈한국어 교육기간〉도 중국에서 3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이 58.9%,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이 80.7%였는데, 중국보다는 한국에서 보다 길게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었다.

〈도서관 이용교육〉은 ‘중국에서 이수한 사람’이 50.5%, ‘한국에서 이수한 사람’이 33.7%였는데, 이를 추가 분석한 결과, 양국 모두에서 이수 44명(21.8%), 중국에서만 이수 58명(28.7%), 한국에서만 이수 24명(11.9%)이었으나, 76명

(37.6%)은 양국 모두에서 도서관 이용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상당수가 도서관 이용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이용교육 기간>은 중국과 한국 모두 단기간 교육(1주일 미만 - 1개월 미만 : 중국 48%, 한국 40%)과 장기간 교육(3개월 - 6개월 이상 : 중국 39%, 한국 46.2%)에 집중되어 있었다.

<컴퓨터와 인터넷 교육>은 '중국에서 이수'가 78.2%, '한국에서 이수'가 48%였는데, 이를 추가 분석한 결과, '양국 모두에서 이수' 84명(41.6%), '중국에서만 이수' 74명(36.6%), '한국에서만 이수' 13명(6.4%)이었고, '양국에서 모두 미이수한 사람'은 31명(15.3%)로 나타나, 도서관 이용교육에 비해 더 많은 사람이 컴퓨터와 인터넷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와 인터넷 교육기간>도 도서관 이용교육기간에 비해 더 길었는데, 중국에서 3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이 75.5%,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이 72.6%였다.

다음으로 아래의 <표 7(좌측)>과 같이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에 관해 6개의 질문을 각 4점 척도(질문에 매우 부정 1점 → 매우 긍정 4점)로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중간점수(2.5점)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리

고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의 의사소통 수준이 한국어 수업 관련 의사소통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학생들은 한국어로 보고서나 시험답안을 작성하는 능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대답하였다.

이어서, 유학생들의 <정보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해 4개의 질문을 각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이들은 아래의 <표 7(우측)>과 같이 학업/일상생활에서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보원을 이용하는 편이라고 대답하는 등 대체적으로 정보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적극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도서관 이용 빈도>에 관한 질문에서, <표 8>과 같이 응답자의 27.4%는 도서관 직접 방문을 거의 하지 않았고, 22.4%는 '2-3개월에 1-2회' 정도 방문하였고, 21.4%가 '1개월에 1-2회' 방문한다고 대답하여, 대체적으로 직접적인 도서관 방문이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도 '거의 안함'이 42.3%, '2-3개월에 1-2회 접속'이 21.4%, '한 달에 1-2회 접속'이 16.4%로 나타나 유학생의 도서관 홈페이지 이용이 직접 방문이용보다 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도서관들의 원인 파악과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표 7> 한국어 능력과 정보에 대한 인식과 태도

한국어 능력	빈도	평균	표준 편차	정보에 대한 인식과 태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일상생활 소통: 길찾기 등	202	3.2970	.69889	학업/일상생활에서 정보의 중요성 인식	201	3.6517	.61491
학교생활 소통: 수강신청 등	200	3.0050	.90503	문제해결에 다양한 정보원 이용	199	3.3970	.64212
한국어 수업내용 이해	201	2.7512	.84724	컴퓨터/인터넷을 오락보다 정보 목적 이용	201	2.9851	.74483
한국어 수업교재 읽기	201	2.8507	.79851	필요한 정보획득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200	3.0450	.73872
한국어 보고서/답안 작성	200	2.6150	.86051				
수업시간 한국어 질의응답	202	2.7921	.82035				

〈표 8〉 도서관 이용 빈도와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 빈도

내용	구분	직접 방문		도서관 홈페이지	
		빈도	유효백분율	빈도	유효백분율
도서관 이용 빈도	거의 이용 안함	55	27.4	85	42.3
	2-3개월에 1-2회	45	22.4	43	21.4
	한 달에 1-2회	43	21.4	33	16.4
	일주일에 1-2회	34	16.9	17	8.5
	일주일에 3-4회	13	6.5	7	3.5
	하루에 1회 이상	11	5.5	16	8.0
	계	201	100	201	100
컴퓨터/인터넷 이용 빈도	구분	컴퓨터		인터넷	
	거의 사용 안함	3	1.5	4	2.0
	한 달에 1-2시간	3	1.5	8	4.1
	일주일에 1-2시간	4	2.0	6	3.1
	2-3일에 1-2시간	5	2.5	7	3.6
	하루 1-2시간 미만	26	12.9	34	17.3
	하루 3-4시간	43	21.4	36	18.4
	하루 4-5시간	47	23.4	39	19.9
	하루 6시간 이상	70	34.8	62	31.6
	계	201	100	196	100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 빈도〉에 대한 질문에 서 약 80%가 '하루 3-4시간 이상'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약 70%가 '하루 3-4시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유학생들이 일상생활과 학업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매우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서관과 도서관 홈페이지의 이용과 상당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보유수준〉에 대한 질문에서, 아래의 〈표 9〉와 같이 응답자 중 94% 정도는 컴퓨터(데스크탑/노트북)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외의 정보통신기기는 휴대전화 88.1%, 전자사전이 68.2%, PMP/MP3가 57.7% 등의 순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을 보유기기수로 분석한 결과, 5가지 보유가 9명(4.5%), 4가지 보유가 79명

(39.1%), 3가지 보유가 51명(25.2%), 2가지 보유가 54명(26.7%)으로 나타났고, 1가지만 보유한 경우와 아무 기기도 없는 경우는 각각 8명(4.0%)과 1명(0.5%)에 지나지 않아, 응답자 중 68.8%가 컴퓨터 외에 3가지 이상의 정보통신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저녁과 주말에 〈인터넷 이용 방식〉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부분이 기숙사(61.7%)와 대학(13.1%) 내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유료 인터넷, PC방, 기타 등으로 나타나, 중국인 유학생들의 절대다수는 일상적으로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 10〉과 같이 유학생들의 〈인쇄매체 접근 수준〉에 대한 질문에서, 이들은 '월 1-2권'(32.2%), '반년 1-2권'(23.8%), '주 1-2권'

〈표 9〉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보유수준

내용	구분	빈도	유효 백분율	내용	구분	빈도	유효 백분율
컴퓨터 소유 여부	그렇다	186	93.9	인터넷 이용 방식	유료인터넷	32	17.5
	그렇지 않다	12	6.1		학과/대학 내	24	13.1
	계	198	100		기숙사 내	113	61.7
정보통신 기기 소유 (복수응답)	휴대전화	177 / 201	88.1		PC방	5	2.5
	전자사전	137 / 201	68.2		기타	6	3.3
	PMP/MP3	116 / 201	57.7		이용하지 않음	3	1.6
	PDA	7 / 201	3.5		계	183	100
	기타	7 / 201	3.5				

〈표 10〉 인쇄매체 접근 수준

내용	구분	책		잡지/저널		구분	신문	
		빈도	유효백분율	빈도	유효백분율		빈도	유효백분율
인쇄 매체 접근 수준	주 1-2권	35	17.3	25	12.6	매일 읽는다	22	11.0
	월 1-2권	65	32.2	72	36.2	주 4-5회	17	8.5
	반년 1-2권	48	23.8	30	14.9	주 2-3회	35	17.5
	연 1-2권	24	11.9	19	9.4	주 1회 미만	32	16.0
	거의 읽지않음	30	14.9	53	26.2	거의 읽지않음	94	47.0
	계	202	100	202	100	계	202	100

(17.3%) 등의 순으로 책을 읽는다고 대답하였고, '월 1-2권'(36.2%), '거의 읽지 않음'(26.2%), '반년 1-2권'(14.9%) 등의 순으로 잡지를 읽는다고 대답하여, 대체적으로 책과 잡지를 많이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은 더욱 읽지 않았는데, '거의 읽지 않음'(47%), '주 2-3회'(17.5%), '주 1회 미만'(1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아래의 〈표 11(좌측)〉과 같이 유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스타일〉에 관해 5개의 질문을 각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학습과정에서 도서관의 중요성 인식', '주교재 외 다

양한 관련자료 참고', '팀별과제/실험/실기 수행시 적극적으로 리드' 순으로 높은 응답이 나왔지만, 대체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의 성향을 뚜렷하게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유학생들의 심리적 상황〉(〈표 11(우측)〉)에 대해 4개의 질문을 각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개인시간을 가진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온 가운데, 각 문항의 응답들이 "부정"(2점)과 "긍정"(3점)의 중간(2.5점)에 밀집되는 것으로 나타나, 유학생들이 어느 정도는 심리적 위축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³⁾

3) 이 질문은 다른 질문과 마찬가지로 매우 부정일 경우 1점을, 매우 긍정일 경우 4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질문내용이 다른 것과 달리 부정적인 내용이므로, 점수가 낮을수록 유학생들의 심리적 상태가 안정적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표 11〉 자기주도적 학습 스타일과 유학생들의 심리적 상황

학습 스타일	빈도	평균	표준 편차	유학생들의 심리적 상황	빈도	평균	표준 편차
주교재 외 다양한 관련자료 참고	202	2.7475	.68431	유학생들에 대한 불안감, 회의가 크다.	200	2.4550	.80074
수업시간에 질문/토론 적극 참여	201	2.6915	.70312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개인시간 가진다.	199	2.5226	.81541
팀별과제/실형시 적극적 리더	201	2.7015	.67856	유학생들에 고독감을 많이 느낀다.	201	2.4726	.86631
리포트/에세이 작성에 익숙	201	2.6965	.73650	타인과 어울리는데 부끄러움이 많다.	200	2.1000	.74348
학업과정에 도서관 중요성 인식	202	2.9604	.77165				

4.2 유학생들의 정보리터러시 실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학생들의 정보리터러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6개 영역별로 5점 척도(질문에 매우 부정 1점 → 보통 3점 → 매우 긍정 5점)로 질문을 구성하였는데, 유학생들은 아래의 〈표 12〉와 같이 모든 영역에서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을 하였으며, 각 영역별 평균점수는 정보윤리/정보문화 > 정보통신기술 > 정보요구 인식/정보원 파악 > 정보분석/종합/관리 > 정보생산/소통/공유 > 정보조사/정보검색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아래의 〈표 13〉과 같이 유학생들의 정보리터러시 실태를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정보요구 인식/정보원 파악〉 영역에서는 ‘과제수행에 필요한 정보유형 파악’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단행본, 저널 등 정보원별 특성 인식’의 평균점수가 가장 낮았으나, 대체적으로 세부항목별로 고른 점수를 보

였다.

〈정보조사/정보검색〉 영역의 경우,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보통’을 약간 상회하고 있었다. 이 영역에서 유학생들은 ‘서명/저자/키워드 등 검색항목 이해’를 가장 잘 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동어, 관련어, 상하위어 사용 검색식 조정’, ‘목록/색인/초록/원문 검색시스템 특성 이해’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에, ‘불리언연산 기법 사용’, ‘인접/절단/구검색 등 고급검색기법 사용’ 등이 이 영역 내에서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어, 유학생들이 정보검색 기법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다.

그리고 〈정보분석/종합/관리〉 영역에서는 ‘수집된 정보의 체계적 분류와 관리’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고, ‘기준에 따른 입수정보 평가’, ‘정보 탐독과 요약’, ‘서지정보 추출’ 등도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Refworks”나 “Endnote” 등과 같은 ‘서지관리도구를 이용한 정보관리’는

〈표 12〉 유학생의 정보리터러시 영역별 평균 값

	정보요구/ 정보원인식	정보조사/ 정보검색	정보분석/ 종합/관리	정보생산/ 소통/공유	정보윤리/ 정보문화	정보통신기술
평균	3.4819	3.2254	3.3447	3.3193	3.8232	3.6231

〈표 13〉 유학생의 정보리터러시 세부항목별 실태

주요 영역	세부 항목	빈도	평균	표준편차
정보요구 인식/ 정보원 파악	주어진 과제의 핵심내용 파악	200	3.4700	0.82614
	과제의 내용을 핵심단어로 표현	199	3.4874	0.82179
	과제수행에 필요한 정보유형 파악	200	3.5650	0.78668
	단행본/저널/학위논문 등 정보원별 특성 인식	200	3.4050	0.88595
정보조사/ 정보검색	설문, 면담, 문헌조사 등 조사방법 이해	200	3.2600	0.91465
	목록/색인/초록/원문 검색시스템 특성 이해	200	3.2900	0.95418
	대중 정보원과 학술 정보원 차이 이해	198	3.2475	0.99459
	서명/저자/키워드 등 검색항목 이해	201	3.3781	0.96764
	블리언연산 기법 사용	201	3.0846	1.01381
	인접/절단/구검색 등 고급검색기법 사용	200	3.1000	0.98736
	결과 내 검색, 연도제한 등 검색항목제한 사용	198	3.1869	0.97190
	동의어, 관련어, 상하위어 사용 검색식 조정	199	3.3015	0.92088
	대출/상호대차/원문복사/다운로드 등 원문입수 원활	200	3.1800	0.96554
정보분석/ 종합/관리	입수정보를 적합성/신뢰성/최신성 등 기준에 따라 평가	199	3.4824	0.79037
	수집된 정보에서 서지정보 추출	199	3.3970	0.88660
	수집된 정보의 탐독과 적절한 요약	198	3.4798	0.77203
	수집된 정보의 체계적 분류와 관리	200	3.4900	0.82663
	서지관리도구를 이용한 정보관리	199	2.8744	1.01965
정보생산/ 소통/공유	체계적, 논리적 보고서 작성	200	3.3700	0.89280
	타 연구결과와 적절한 인용(각주, 참고문헌 등)	199	3.3518	0.87437
	보고서작성에 워드/이미지/프리젠테이션 등 도구 사용	201	3.4627	0.86015
	사진/음악/영상을 이용한 UCC 제작	200	3.0150	1.00490
	정보교환 위해 Listserv/인터넷카페/블로그 등 이용	199	3.3970	1.01414
정보윤리/ 정보문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비 철저	201	3.8209	0.91529
	타인의 연구나 인터넷 게시물 이용시 표절문제 인식	199	3.6030	0.92014
	저작물의 공정이용과 정당한 비용 지불	200	3.5550	0.94416
	인터넷 예절의 준수	201	4.0448	0.85615
	인터넷 중독과 게임중독의 위험성 인식	200	4.0900	0.91985
정보통신기술	인터넷 검색의 원활한 사용	198	3.8434	0.87882
	중국어 언어팩 설치	201	3.7015	0.96460
	메신저의 원활한 사용	201	4.1542	0.80690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의 원활한 사용	200	3.9000	0.89667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의 원활한 사용	199	3.8040	0.83894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의 원활한 사용	199	3.7739	0.91238
	영상편집 프로그램의 원활한 사용	200	3.0850	1.11535
	그래픽 프로그램의 원활한 사용	201	3.2139	1.04833
	홈페이지 제작 가능	199	2.9347	1.10589
	프린터/스캐너/이동저장장치 등 주변기기 원활한 사용	200	3.8200	0.92296

‘보통’ 이하의 평균점수로 가장 낮게 나타나, 유학생들이 고급단계의 정보관리에는 아직 익숙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정보생산/소통/공유〉 영역은 〈정보조사/정보검색〉 다음으로 낮은 점수를 얻은 영역이었는데,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워드프로세서/이미지/프리젠테이션 등 도구 사용’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다음으로 ‘정보교환 위해 Listserv/인터넷카페/블로그 등 이용’, ‘체계적, 논리적 보고서 작성’, ‘타 연구결과의 적절한 인용’ 등의 순이었다.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적인 기량이 요구되는 ‘사진/음악/영상을 이용한 UCC 제작’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정보윤리/정보문화〉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유학생들은 ‘인터넷 중독과 게임중독의 위험성 인식’과 ‘인터넷 예절의 준수’에 비교적 높은 점수를 주고 있었으며, 그 다음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비 철저’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저작물의 공정이용과 정당한 비용 지불’ 항목과 ‘타인의 연구나 인터넷 게시물 이용 시 표절문제 인식’ 항목은 상대적으로 유학생들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영역에 비해서 낮은 점수는 아니었다.

끝으로 유학생들은 〈정보통신기술〉 영역에 있어서 〈정보윤리/정보문화〉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들은 ‘메신저의 원활한 사용’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는데, 메신저가 모국의 가족, 친구들과 비용없이 대화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

로는 ‘워드 프로세서’, ‘인터넷 검색’, ‘주변기기’, ‘중국어 언어팩’, ‘스프레드시트’, ‘프리젠테이션’ 등의 순으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상당한 수준의 정보통신기량이 필요한 ‘홈페이지 제작’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어서 ‘영상편집 프로그램’, ‘그래픽 프로그램’ 등도 사용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학생의 정보리터러시 수준 분석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인 유학생들의 인구학적 배경과 유학생의 정보리터러시와 관련해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 변수들을 토대로 집단간 차이분석을 실시하여 아래의 〈표 14〉와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남녀간 〈성별〉에 따른 정보리터러시의 평균점수는 두 집단간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t=2.154, p=0.145$), 〈전공분야〉별 정보리터러시 평균점수에서는 예술/체육과 자연 분야가 높게 나타났으나, 집단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1.607, p=0.174$).⁴⁾

〈한국 유학기간〉에 따른 정보리터러시 수준에서는 ‘5년 이상’과 ‘5년 미만’의 점수가 매우 높은 반면, ‘4년 미만’과 ‘2년 미만’, ‘1년 미만’은 대체로 낮은 점수로 나타나, 유학기간이 길수록 정보리터러시 평균점수가 높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었다($F=2.557, p=0.029$).

4) 연령별에서는 20대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89.4%)를 차지하였고, 재학형태 또한 정규입학이 75.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집단간 평균 차이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았다.

〈표 1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학생의 정보리터러시 수준

일반적 특성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p
성별	남	80	130.9750	24.75755	2.154	0.145
	여	57	130.5789	18.22082		
전공분야	인문	58	132.2414	14.92826	1.607	0.174
	사회	58	128.2931	20.49476		
	자연	15	140.3333	21.76717		
	공학	61	126.8689	27.31329		
	예술/체육	3	142.0000	39.94997		
한국 유학기간	1년 미만	76	128.3289	24.49620	2.557	0.029*
	2년 미만	43	127.3256	18.79934		
	3년 미만	24	131.3750	17.13834		
	4년 미만	27	127.1852	16.45749		
	5년 미만	16	136.2500	23.67418		
	5년 이상	12	149.0833	20.26846		
재학 학년	학부 1-2학년	62	125.7258	16.66465	5.207	0.006*
	학부 3-4학년	68	129.9412	19.54168		
	대학원 이상	58	137.5862	24.46912		
한국어 교육 이수	두 국가에서 모두 이수	139	129.8993	19.72944	0.501	0.682
	중국에서만 이수	14	136.1429	26.92399		
	한국에서만 이수	45	129.6222	25.88198		
	전혀 이수하지 않음	4	123.2500	22.36627		
도서관 이용 교육 이수	두 국가에서 모두 이수	44	133.8409	20.84823	1.156	0.328
	중국에서만 이수	58	131.2931	26.45884		
	한국에서만 이수	24	131.5000	19.41985		
	전혀 이수하지 않음	76	126.6842	18.59406		
컴퓨터와 인터넷 교육이수	두 국가에서 모두 이수	84	135.0595	20.90676	3.678	0.013*
	중국에서만 이수	74	128.3514	24.20315		
	한국에서만 이수	13	116.6154	14.94177		
	전혀 이수하지 않음	31	126.7419	16.43567		
컴퓨터와 인터넷 교육기간(한국)	1주일 미만	7	105.1429	27.63710	3.754	0.004*
	1개월 미만	5	122.8000	29.52457		
	2개월 미만	3	141.0000	23.51595		
	3개월 미만	11	127.8182	16.04879		
	6개월 미만	32	134.3125	13.90622		
	6개월 이상	37	137.3784	21.17172		
한국어 능력	응답자 평균점수 미만	86	122.8953	24.25697	-4.068	0.000*
	응답자 평균점수 이상	116	135.5086	17.92715		
정보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응답자 평균점수 미만	84	119.5119	21.83591	-6.428	0.000*
	응답자 평균점수 이상	118	137.7034	18.26131		

일반적 특성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p
정보통신기기 보유 수준	보유하지 않음	1	115.0000	.	2.281	0.048*
	1가지 보유	8	116.6250	33.80591		
	2가지 보유	54	128.7963	25.27537		
	3가지 보유	51	125.9216	19.18837		
	4가지 보유	79	133.9241	17.91058		
	5가지 보유	9	142.5556	23.25463		
인쇄매체 접근수준	응답자 평균점수 미만	103	126.6311	19.53428	-2.368	0.019*
	응답자 평균점수 이상	99	133.7879	23.32611		
자기주도적 학습스타일	응답자 평균점수 미만	88	120.1705	19.68033	-6.250	0.000*
	응답자 평균점수 이상	114	137.8333	20.09707		
심리적 상황	응답자 평균점수 미만	98	130.1735	21.53110	-0.022	0.982
	응답자 평균점수 이상	104	130.1058	22.00217		

〈재학학년〉에서는 집단을 ‘학부 1-2학년’, ‘학부 3-4학년’, ‘대학원 이상’의 세 개로 구성한 결과, 재학학년이 높아질수록 정보리터러시 평균점수가 높아졌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5.207, p=0.006$).

〈한국어 교육 이수〉에서는 중국에서 이수한 그룹의 정보리터러시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양국에서 이수한 그룹, 한국에서 이수한 그룹, 이수하지 않은 그룹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0.501, p=0.682$). 그리고 〈한국어 교육 이수 기간(중국)〉과 〈한국어 교육 이수 기간(중국)〉에 있어서는 둘 다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이용교육 이수〉에 있어서는 양국에서 이수한 그룹이 가장 평균점수가 높았고, 한국에서 이수한 그룹, 중국에서 이수한 그룹, 이수하지 않은 그룹 순이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1.156, p=0.328$). 이 항목은 다시 도서관 이용교육자(126명)와 비이수자(76명) 그룹으로 나누어 t검증을 실시하

였는데, 그 결과 $t=1.765, p=0.079$ 로 $p<0.05$ 수준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p<0.1$ 에서는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서관 이용교육 이수 기간(한국)〉과 〈도서관 이용교육 이수 기간(중국)〉에 대해 분석한 결과, 각각 $p=0.728$ 과 $p=0.884$ 로 나타나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컴퓨터와 인터넷 교육 이수〉에 관해서는 한국에서 이수한 그룹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고, 중국에서 이수한 그룹과 양국에서 이수한 그룹의 점수가 이수하지 않은 그룹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3.678, p=0.013$).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 교육 기간(한국)〉의 경우, ‘2개월 미만’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이어서, ‘6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개월 미만’, ‘1개월 미만’, ‘1주일 미만’ 순으로 높았으며,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의 평균점수 차이도 다른 영역에 비해 확연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3.754, p=0.004$). 하지만, 〈컴퓨터와 인터넷 교육 기간(중국)〉에

따른 집단간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므로 나타났다.

〈한국어능력〉의 경우,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에 관한 각 4점 척도의 질문 6개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통해, '응답자 평균점수 미만'과 '응답자 평균점수 이상' 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한국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정보리터러시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어, 한국어 능력이 정보리터러시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t=-4.068, p=0.000$).

〈정보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경우, 각 4점 척도의 질문 4개에서 얻어진 데이터에 근거해 '응답자 평균점수 미만'과 '응답자 평균점수 이상' 그룹으로 분석한 결과, 정보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적극적인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사이에 상당한 평균점수의 차이로 존재하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t=-6.428, p=0.000$).

〈정보통신기기 보유 수준〉의 경우, 5가지 보유 그룹이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고, 이어서, 4가지 보유, 2가지 보유, 3가지 보유, 1가지 보유, 보유하지 않은 그룹 순으로 나타나, 정보통신기기를 많이 보유해 자주 접하는 사람일수록 정보리터러시 수준이 높은 것을 입증하였다($F=2.281, p=0.048$).

〈인쇄매체 접근수준〉 항목에서는 유학생들의 책, 잡지/저널, 신문 등에 관한 독서 빈도를 각각 점수화하여 얻어진 데이터⁵⁾를 기반으로, '응답자 평균점수 미만'과 '응답자 평균점수 이

상'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인쇄매체 접근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정보리터러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t=-2.368, p=0.019$).

〈자기주도적 학습스타일〉 항목에 관한 4점 척도의 질문 5개에서 얻어진 데이터에 근거해, '응답자 평균점수 미만'과 '응답자 평균점수 이상' 그룹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자기주도적 학습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비교적 큰 평균점수 차이를 보여 정보리터러시 수준이 높음을 입증하였다($t=-6.250, p=0.000$).

끝으로 〈심리적 상황〉에 대한 각 4점 척도의 질문 4개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응답자 평균점수 미만'과 '응답자 평균점수 이상' 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두 집단의 평균점수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았다($t=-0.022, p=0.982$).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국내의 대학입학예정자 감소추세와 맞물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원활한 학업수행을 위해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정보리터러시 수준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부산과 인근지역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2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대략 정리하면

5) 세 가지 인쇄매체 접근 수준에 관한 질문들은 공통적으로 5개의 선택지로 포함하고 있는데, 1번(자주 읽음)을 4점, 2번을 3점, 3번을 2점, 4번을 1점, 5번(거의 읽지 않음)을 0점으로 하여 수치화하여 3개의 질문에 대한 총점 12점으로 합산하였다. 평균값이 5.4로 나타나 5점 미만과 6점 이상으로 나누어 두 집단을 구성하였다.

다음과 같다.

먼저, 설문에 참여한 유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① 중국인 유학생의 절대 다수(98%)는 중국이나 한국 또는 양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하고 있었으며, 교육기간은 3개월 이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② 도서관 이용교육을 중국이나 한국 또는 양국에서 이수한 경우가 63.4%였고,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37.6%로 나타나, 아직 상당수의 유학생이 기본적인 도서관 이용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교육기간은 1개월 미만의 단기간과 3개월 이상의 장기기간으로 양분되고 있었다. ③ 대부분의 유학생(84.7%)이 컴퓨터와 인터넷 교육은 중국이나 한국 또는 양국에서 이수하였으며, 대부분 3개월 이상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④ 유학생들은 자신들의 한국어 능력을 보통보다 조금 나은 정도로 인식하고 있어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었으며, 학업수행 관련 언어 능력은 그보다도 조금 낮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⑤ 유학생들은 학업과 일상생활에서 정보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 이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⑥ 유학생들은 대체적으로 2-3개월에 1-2회와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에 이를 정도로 도서관 방문 이용이 저조하였고, 도서관 홈페이지를 2-3개월에 1-2회 이용하거나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4%에 이를 정도로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었다. ⑦ 유학생 대부분(70-80%)은 하루 3-4시간 이상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하루 6시간 이상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도 응답자의 32-35%에 달할 정도로,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었다. ⑧ 응답자의 94%는 컴퓨터를 보유

하고 있었으며, 컴퓨터 외에 88.1%가 휴대전화를, 68.2%가 전자사전을, 57.7%가 PMP/MP3를 보유하고 있었고, 기숙사나 대학 내 인터넷, 유료 인터넷 등을 통해 거의 대부분(98%)이 저녁이나 주말에도 인터넷 접속을 유지하고 있었다. ⑨ 반면, 반년에 1-2권 이하로 책을 읽는 사람과 반년에 1-2권 이하로 잡지를 읽는 사람이 각각 약 51%였고, 주 1회 미만으로 신문을 읽는 사람이 63%로 나타나 인쇄매체에 대한 낮은 접근과 이용을 보여주었다. ⑩ 유학생들은 자기주도적 학습스타일 여부에 대해 중간점수를 약간 상회할 정도의 응답을 보여주고 있었다. ⑪ 끝으로, 유학생들은 유학생화로 인한 심리적 상황에 대한 질문에서 거의 중간점수이라고 응답하여 어느 정도 심리적인 위축과 고독,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학생들은 자신들의 각 영역별 정보리터러시 수준에 대해 최저 1점과 최고 5점에서 중간인 3점을 조금 상회한다고 응답하여, 스스로 정보리터러시 수준이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었다. 각 항목별로는 <정보윤리/정보문화>, <정보통신기술>, <정보요구 인식/정보원 파악> 순으로 상대 점수가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정보조사/정보검색>, <정보생산/소통/공유>, <정보분석/종합/관리> 순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의 정보리터러시와 관련한 집단간 차이분석에서는 <한국 유학기간>, <재학 학년>, <컴퓨터와 인터넷 교육이수>, <컴퓨터와 인터넷 교육기간(한국)>, <한국어 능력>, <정보에 대한 인식과 태도>, <정보통신기기 보유>, <인쇄매체 접근수준>, <자기주도적 학습스타일> 등의 항목에 있어서는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성별>, <한국어 교육이수>, <한국어 교육기간>, <도서관 이용교육 이수>, <도서관 이용교육 기간>, <컴퓨터와 인터넷 교육기간(중국)>, <심리적 상황> 등은 집단간 차이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서관 이용교육>에 대해 추가적으로 t검증을 실시한 결과, $p < 0.1$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본 연구에서 조사된 결과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내 유학생들의 정보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조사된 유학생들의 정보리터러시 수준은 각 항목별로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 사이에 중간 점수인 3점을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유학생들에 의해 자기진단되었는데, 이러한 수준은 학업수행과 그 이후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충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학당국과 대학도서관 등에서는 유학생의 정보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정보조사/정보검색>, <정보생산/소통/공유>, <정보분석/종합/관리> 영역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정보리터러시 프로그램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몇 가지 사항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우선 수요자인 외국인 유학생의 요구를 반영할 창구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모임 등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실시시기는 갖 유학 온 학생과 저학

년생의 정보리터러시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반영하여 학기 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유학생들은 한국어 능력에 대해 스스로 중간점수보다 조금 나은 정도로 평가하였고, 유학생의 모국어나 영어로 진행된 정보리터러시 관련 교육의 효과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졌으므로, 가능하다면 주요 유학생 그룹의 모국어나 영어로 정보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한국어에 능통하고 도서관 이용과 정보리터러시 수준이 높은 대학원 유학생이나 학부 고학년 유학생, 또는 영어나 유학생 모국어로 능통한 국내 학생을 정보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자(사서)를 보조하면서 프로그램에 참가한 외국인 유학생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조교나 통역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유학생들은 컴퓨터/인터넷 교육이수 비율과 교육기간, 컴퓨터/인터넷 사용빈도, 컴퓨터/정보통신기기 보유 수준과 인터넷 접속 비율 등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도서관 이용교육 이수 비율, 도서관과 도서관 홈페이지 이용 빈도, 인쇄매체 접근 등 도서관과 전통적 매체는 매우 낮은 수준의 이용 실태를 보였다. 즉, 유학생들은 도서관이나 전통적 매체보다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정보 접근과 이용에 훨씬 더 익숙해져 있으며, 주로 이런 방법으로 학업수행 등에 필요한 정보를 충족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인터넷에 산재한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정보에 편중되어 의존하는 것은 고등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유학생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향후 유학생들의 정보리터러시 증진을 위해 대학도서관은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정보자원을 소속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 유학생을 위한 정보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도서관 홈페이지와 도서관 이용안내 자료를 유학생 모국어

나 영어 등 다국어 버전으로 제작하여 도서관이 유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어 구사가 원활한 유학생이나 유학생 모국어에 능통한 국내 학생을 근로학생 등으로 채용하여 오프라인 참고봉사는 물론이고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한 가상 참고봉사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online]. [cited 2009.09.07]. <<http://www.mest.go.kr>>.
- [2] 김태자, 민지은, 이상호. 2008.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도서관 이용자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學生生活研究』, 33: 1-17.
- [3] 박명규. 2004. 『학교도서관 중심의 정보교과 교육과정 모형』.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4] 부산시 국제교류재단 홈페이지. [online]. [cited 2009.08.06]. <<http://www.bfia.or.kr>>.
- [5] 이수상. 2009.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디지털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에 관한 연구. 『인문학논총』, 14(3): 191-217.
- [6] 이수상, 위성광. 2007. 중국 유학생의 대학도서관 포털 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4): 113-134.
- [7] 이용재 외. 2009. 이주민의 정보리터러시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4): 113-137.
- [8] 이현실, 황동렬. 2007. 외국인 학생을 위한 대학도서관 정보이용 교육 사례 연구: 교육효과와 요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4): 145-165.
- [9] 조현주. 2008.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관련 정보추구행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10] ALA. 1989. "Presidential Committee on Information Literacy: Final Report." [online]. [cited 2009.10.25]. <<http://www.ala.org/ala/mgrps/divs/acrl/publications/whitepapers/presidential.cfm>>.
- [11] ACRL Homepage. [online]. [cited 2009.06.18]. <<http://www.ala.org/ala/mgrps/divs/acrl/standards/informationliteracycompetency.cfm>>.
- [12] Amsberry, Dawn. 2008. "Talking the Talk: Library Classroom Communication and International Students."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34(4): 354-357.
- [13] ANZIIL. 2004. "Australian and New Zealand Information Literacy Framework - principles,

- standards and practice.” [online]. [cited 2009.07.21].
〈<http://www.anziil.org/resources/Info%20lit%202nd%20edition.pdf>〉.
- [14] Badke, William. 2002. “International students: information literacy or academic literacy?” *Academic Exchange Quarterly*, 6(4): 60-66.
- [15] Baron, Sara., & Strout-Dapaz, Alexia. 2001. “Communicating with and empowering international students with a library skill set.” *Reference Services Review*, 29(4): 314-326.
- [16] Hughes, Hilary. 2001. “The international-friendly library - customising library services for students from overseas.” *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2001 TAFE Libraries Conference*. [online]. [cited 2009.08.14].
〈<http://conferences.alia.org.au/tafe2001/papers/hilary.hughes.html>〉.
- [17] Hurley, Tina., Hegarty, Nora., & Bolger, Jennifer. 2006. “Crossing a bridge: The challenges of developing and delivering a pilot information literacy course for international students.” *New Library World*, 107(1226/1227): 302-320.
- [18] Jackson, Pamela A. 2005. “Incoming international students and the library: a survey.” *Reference Services Review*, 33(2): 197-209.
- [19] Liestman, Daniel, & Wu, Connie. 1990. “Library Orientation for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ir Native Language.” *Research Strategies*, 8(4): 191-196.
- [20] McClure, Jennifer, & Krishnamurthy, Mangala. 2007. “Translating the Libraries: A Multilingual Information Page for International Students.” *The Southeastern Librarian*, 55(1): 26-31.
- [21] Mu, Cuiying. 2007. “Marketing academic library resources and information services to international students from Asia.” *Reference Services Review*, 35(4): 571-583.
- [22] NFIL Homepage. 2009. [online]. [cited 2009.06.20]. 〈<http://www.infolit.org/index.html>〉.
- [23] Owusu-Ansah, E. K. 2005. “Debating definitions of information literacy: enough is enough!” *Library Review*, 54(6): 366-374.
- [24] Song, Yoo-Seong. 2004. “International business students: a study on their use of electronic library services.” *Reference Services Review*, 32(4): 367-373.
- [25] Telford, Janet. 2006. “Treasure Hunting: information literacy for International Nursing Students.”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of New Zealand Conference*. [online]. [cited 2009. 10. 1].
〈http://www.lianza.org.nz/library/files/store_014/TreasureHunting_JTelford.pdf〉.
- [26] UNESCO, IFLA & NFIL. 2006. “Alexandria Proclamation on Information Literacy and Lifelong Learning.” [online]. [cited 2009.06.15].

<http://portal.unesco.org/ci/en/ev.php-URL_ID=20891&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

- [27] Varga-Atkins, Tunde, & Ashcroft, Linda. 2004. "Information skills of undergraduate business students - a comparison of UK and international students." *Library Management*, 25(1/2): 39-55.
- [28] Wlater, Scott. 2005. "Moving beyond collection: Academic library outreach to multicultural student centers." *Reference Services Review*, 33(4): 438-458.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online]. [cited 2009.09.07]. <<http://www.mest.go.kr>>.
- [2] Tae-Ja Kim, Ji-Eun Min, & Sang-Ho Lee. 2008. "Oegukin Uhaksaengeul Wihan Doseogwan Iyongja Programe Gwanhan Yeongu." *Haksaeng Saenghwal Yeongu*, 33: 1-17.
- [3] Myung-Kyu Park. 2004. *A curricular model of information literacy for school libraries in Korea*. PH.D. diss., Yonsei University.
- [4] Bus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Activities. [online]. [cited 2009.08.06]. <<http://www.bfia.or.kr>>.
- [5] Soo-Sang Lee. 2009. "A Study on the Multicultural Services of Digital Library for Foreign Students Studying in Korea." *Inmunhak Nonchong*, 14(3): 191-217.
- [6] Soo-Sang Lee, & Cheng-Guang Wei. "A Study on the Service Satisfaction of University Library Portal for Chinese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1(4): 113-134.
- [7] Yong-Jae Lee, et al. 2009.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Information Literacy of Immigrants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4): 113-137.
- [8] Hyun-Sil Lee, & Dong-Ryul Hwang. 2007. "A Case Study of the Information Literacy Course for Foreign Students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Educational Effect and Demand."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4): 145-165.
- [9] Hyun-Joo Cho. 2008.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for study of international students*. Graduate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